

KIA 감독 “시범경기서 마지막 퍼즐 맞추는 것”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한화와의 시범경기 개막전(13일)을 앞두고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진행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스프링캠프 전반적으로 만족
젊은 선수 성장... 총 두터워져
다양하고 디테일한 작전 시도
선수 경기 감각 올리는데 주력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개막 전 치러지는 시범경기를 통해 시즌을 대비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김종국 KIA 감독은 지난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자체 연습경기에서 앞서 “전체적으로 템스가 지난 해에 비해 두텁게 잘 준비돼 있다. 올시즌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범경기에서 최대한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경기감각을 익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KIA는 13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2연전을 시작으로 키움 히어로즈(15~16일)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두산 베어스(18~19일), LG 트윈스(20~21일), SSG 랜더스(23~24일), NC 다이노스(25~26일)와 홈 경기 후 롯데 자이언츠(27~28일) 원정 경기로 시범경기를 마무리한다.

KIA는 시범경기를 통해 다음달 1일 SSG와의 개막 시리즈에 나설 라인업 윤곽을 확정 짓는다. 김종국 감독은 시범경기를 통해 정규리그에서 활용할 다양한

작전을 실험할 계획이다.

김 감독은 “시범경기도 시즌이라 생각하고 상황에 맞춰 작전을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가져가며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선수들의 게임 감각 역시 빠르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범경기 말미인 24~25일 경기부터는 스타팅 멤버와 투수 로테이션에 맞춰서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5선발로 누가 낙점되느냐다. 김종국 감독은 손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 양현종, 이이리 등을 1~4선발로 정했다. 마지막 선발 한자리를 두고 임기영과 김기훈, 윤영철을 테스트할 계획이지만 임기영이 한발 앞선 모양새다.

김 감독은 “임기영과 김기훈, 윤영철이 선발 경쟁을 하고 있다. 임기영은 이미 검증된 선수고 김기훈은 작년 군 제대 후 잠깐이었지만 좋은 성적을 냈고 올해는 가장 기대되고 잘해줘야 하는 선수다. 윤영철도 선발로 기대되는 선수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훈은 선발이 아니더라도 볼펜에서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윤영철은 장기적으로 선발 수업을 생각하고 있고 준비도 그렇게 할 것 같다. 누가 한 턴을 쉬거나 선발 투수진의 이탈이 있으면 그때 콜업해 1군에 합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도영과 김규성, 김석환, 변우혁, 최지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김도영과 김규성, 김석환, 최지민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지난해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투타에서 맹활약했다.

김 감독은 “김도영과 김석환은 작년에는 코로나 이슈로 스프링캠프에 늦게 합류해 준비를 잘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지금 당장 개막해도 될 정도로 컨디션도 좋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도영은 야수 쪽에서는 키플레이어로 생각하고 있고 김규성과 김석환, 최지민은 질풍코리아에서부터 준비를 아주 잘했다. 젊은 선수들이 좀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주면 우리팀이 지속적인 강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적생 변우혁과 김대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김 감독은 “투수 김대유는 LG에서 2년 동안 필승조로 좋은 활약을 했고 올해도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 변우혁은 캠프때 장점인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시범경기에서도 컨디션을 잘 유지한다면 올해 1군서 많은 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상 중인 박찬호와 이창진, 장현식의 복귀 시기도 긍정적으로 봤다.

김 감독은 “장현식은 오키나와에서 볼펜 피칭을 했는데 상대가 좋다. 퓨처스에서 경기 감각을 익힌 뒤 4월 말 정도 1군에 합류할 것 같다. 이창진은 회복 속도가 아주 빨라 다음 주면 퓨처스 실전에 합류하고, 박찬호도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경기에는 합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글: 사진-한규빈 기자

WBC 한국 대표팀 2패 뒤 첫 승

약체 체코 상대로 7-3 승리
선발 박세웅 4.2이닝 무실점



한국야구대표팀이 약체 체코를 꺾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3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대표팀은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1라운드 B조 체코와의 경기에서 7-3으로 이겼다.

호주와 일본에 연이어 패한 한국은 이날 선발 박세웅의 호투와 초반 타선 타선의 활약에 힘입어 대회 첫 승을 올렸다.

선발로 나선 박세웅은 4.2이닝 동안 1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 패투를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박세웅은 15타자를 상대로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를 고루 섞어

던지며 체코 타자를 공략했다.

곽빈은 5회 2사 2루 상황에서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1이닝 2피안타 3탈삼진 2실점으로 흔들렸다.

이어 정철원(0.2이닝 무실점)-고영표(0.2이닝 1실점)-김원중(0.1이닝 무실점)이 차례로 등판해 체코 타자를 상대했다.

이용찬은 8회말 2사 만루 상황에서 구원 등판해 1.1이닝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세이브를 올렸다.

한국 타선은 이날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2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이 솔로 홈런 두방을 터뜨려 승리에 힘을 보탤 5번 1루수 강백호는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최동환 기자



토트넘의 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2022~2023 EPL 27라운드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17분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원발 슈트를 성공시키고 있다.

AP/뉴시스

‘EPL 99골’ 손흥민... 100호 골까지 1골 남았다

후반 17분 리그 6호·시즌 10호
토트넘, 노팅엄에 3-1 승 '4위'

토트넘의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99번째 골을 터뜨리며 100호골을 눈앞에 뒀다.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2022~2023 EPL 27라운드 선발 출전해 2-0으로 앞선 후반 17분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17분 역습 기회에서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원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달 20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득점 이후 정규리그 3경기 만에 터진 손흥민의 올시즌 리그 6호골이다. EPL 통산 99호골로 이제 100호골에 단 1골만 남겼다.

리그와 컵대회를 통틀어 시즌 10호골이기도 하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6~2017시즌을 시작으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에 성공했다.

후반 39분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된 손흥민은 84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슈팅 4차례, 패스 성공률 86%, 기회 창출 5차례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멀티골과 손흥민의 썬기골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두며 승점 48점(15승 3무 9패)으로 리그 4위 자리를 지켰다.

손흥민은 경기 후 현지매체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았다. 유럽축구통계전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3점을 부여했다. 팀 내 1위는 케인으로 8.6점을 받았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에 대해 “시작부터 활기차고 자신 있게 공을 뿌렸다. 후반전에는 히샤를리송의 크로스를 침착하게 터치 후 마무리로 보상을 받았다”며 8점을 줬다.

최동환 기자

광양시청 가수형·백승민·김동현, 불링 남자 국대 선발

곡성군청 김현미 여자 국가대표

광양시청 가수형·백승민·김동현과 곡성군청 김현미가 2023년 불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구 에니원볼링경기장과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볼링경기장에서 나눠 치러진 2023년 불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남 소속 불링선수 4명이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남·녀 각 8명씩 최종 선발되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서 가수형(광양시청)은 마지막 6일차에서의 활약을 앞세

워 함께 1만1728점(평균 244.3점)으로 남자부 1위를 차지, 2021년부터 3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다.

백승민(광양시청)은 6위에 올라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지난해 대학무대와 국가대표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던 김동현(광양시청)은 7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선발됐다.

여자부에서는 김현미(곡성군청)가 2년 연속 여자부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현미는 1일차부터 선두에 오르는 등 선발전 내내 압도적인 투구를 자랑하며 함께 1만1332점(평균 236.1점)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최동환 기자